

요약

서울로 7017,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주변지역과 연계로 활성화에 주력 필요

공원화사업 거쳐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거듭난 서울로 7017

2017년 5월 20일,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자 서울의 상징적 구조물이었던 서울역 고가가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재탄생했다. 서울역 고가는 2006년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가 결정되었다. 이후 철거를 미루다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면서 전면철거보다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공원화 사업을 거쳐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재탄생한 ‘서울로 7017’은 주변지역의 통합재생이 목적이다. 철도로 단절된 서울역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여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활성화하자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이에 서울로 7017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17개의 보행길로 구성되어 있다.

645개 원형 화분에 24,805주 수목 심어진 공중공원으로 ‘새숨결’

서울로 7017은 국제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비니 마스(Winy Maas)의 ‘서울 수목원’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최고 높이 17m, 총 길이 1,024m의 고가를 공중(空中)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계획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645개의 원형 화분이 설치되었고, 각 화분에 ‘가나다’순의 수목 학명에 따라 총 228종, 24,805주의 수목이 식재되었다. 1km 넘는 길이의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서울로 7017에는 수목 이외에 19개의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이 중 10개는 문화콘텐츠 시설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장미무대, 목련무대, 담쟁이극장, 정원교실, 서울로전시관과 트램펄린(trampoline)이 설치된 방방놀이터, 족욕체험이 가능한 공중자연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공식기념품을 판매하는 서울로가게와 종합관광정보센터인 서울로 안내소를 비롯해 목련다방, 수국식방, 서울화반 등 카페와 음식점도 설치되어 있다.

‘슈즈트리’ 등 811개 프로그램 운영...작년 개장 이후 연말까지 741만 명 방문

2017년 5월 20일 개장 이후 12월 31일까지 서울로 7017을 찾은 방문객은 약 741만 명이다. 짧은 기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고가를 찾았다.

고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집중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슈즈트리’를 포함하여 총 811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74만 명에 이르렀다.

주요 행사는 계절축제, 시민봉사단인 초록산책단에서 운영하는 상설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낮잠의 여유, 노천보드게임카페, 여행자 북클럽 등)이다. 서울로운영단이 주관한 프로그램이 총 467회 개최되었고, 거리예술시즌제 등 협력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행사가 총 344회 열렸다.

행사는 대부분 고가 상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로 7017 일대라고 표기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체 프로그램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79.4%가 고가 상부에서 개최된 프로그램이다. 서울로 7017 일대라고 표기된 프로그램 또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고가 상부에서 개최된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고가 자체의 활성화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로 7017의 이미지는 보행로·공원...긍정어가 부정어의 1.9배

전체적으로 서울로 7017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뉴스와 블로그를 분석한 결과, 형성되는 이미지는 보행로와 공원이었다. 또한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었다.

우선, 201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뉴스와 블로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총 버즈량은 32,346건이었다. 뉴스 데이터는 총 6,393건이었고, 블로그 데이터는 25,953건이었다.

버즈량 추이를 살펴보면, 개장일이 포함된 5월(7,642건)과 6월(6,070건)에 가장 많았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서울로 7017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키워드 분석 결과 공간의 성격은 ‘보행’과 ‘공원’이 압도적이었다. 이슈로 제기된 키워드는 ‘안전’과 ‘설치’ 등이었고,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로 나타난 키워드는 ‘맛집’, ‘관광’, ‘여행’ 등이었다.

시기별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를 개장 전(2017.1.1.~5.19.)과 개장 초기(5.20.~7.31.), 개장 중기(8.1.~9.30.), 개장 후기(10.1.~11.30.)로 나눠 분석한 결과, ‘공간 성격’은 시간이 갈수록 ‘공원’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슈’는 슈즈트리에 대한 관심에서 ‘안전’과 ‘설치’ 쪽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다. ‘방문목적 및 이용형태’와 관련된 키워드는 ‘맛집’이 가장 많았고, 개장 후기로 갈수록 ‘코스’, ‘야경’, ‘데이트’ 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1.9배 많았다.

종합해 보면, 개장 초기 서울로 7017은 보행공간이란 특성에 시가 주도한 여러 행사에 관심이 많았으나, 개장 이후 전반적인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보행보다는 공원의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은 주로 휴식, 산책, 도시 조망 위해 이용...만족도도 높아

서울로 7017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로 7017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개장 효과와 계절 효과 등을 고려해 8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단위로 300명씩 총 3번 실시했으며, 관찰조사는 11월 둘째 주 목~일요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가 서울로 7017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형태는 주로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시간은 아주 짧거나(30분 미만) 조금 길게(1시간~1시간 3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은 휴식 및 산책이 많았고, 호기심이나 도시조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도 있었다.

가장 많이 한 행위는 걷기였다. 그 다음으로는 앉아서 쉬기, 사진찍기, 주변지역 조망 등의 행위 순이었다. 그러나 공연이나 전시 참여도는 낮았고, 시설이용률도 높지 않았다.

관찰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설문조사에 비해 관찰하기 편한 1인 방문자를 많이 관찰하다 보니 다소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조사 결과 이용시간은 평균 21.49분이었으며 시속 1.85km의 속도로 매우 느리게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으면서 하는 행동은 식물관람과 대화하기, 도시조망, 사진찍기 등이었다.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역광장과 남대문로를 조망할 수 있는 방방놀이터와 목련무대, 장미무대 인근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 7017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좋다는 응답(5.49)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지역 조망공간(5.54)으로서, 걸으면서 사색하는 공간(5.40)으로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5.26)으로서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 7017 자체가 산책공간으로서, 식물을 관람하고 도시를 조망하는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주변지역 방문발길 많지 않아... 만리동 등 지역변화는 아직 없어

활성화된 고가와 달리,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발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방문자 중 23.8%가 주변지역 방문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관찰조사로 살펴본 결과,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수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나마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방문자는 남대문시장과 서울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서계동이나 만리동, 중림동 등은 해당 방향의 고가출입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을 정도로 한산했다.

이런 흐름은 지역주민들도 느끼고 있었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변화 체감도는 크지 않았다. 주민들은 방문객이나 지가임대료 등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오히려 몇몇 상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방문객과 매출액, 수입 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복잡한 서울로 7017과 달리 주변지역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대문시장과 서울역광장 주변, 중림동 지역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선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 향후 방문객 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할 것으로 보았고, 업종 변화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역적으로는 만리동과 서계동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들어설 업종으로는 카페와 음식점을, 줄어들 업소로는 자동차나 봉제 관련 업소를 예상했다.

대다수 전문가 “주변지역 연결하는 허브 역할이 최우선 과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로 7017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포럼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서울로 7017의 역할을 강조했고, 향후 발전방향 또한 이를 중심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 포럼 횡수는 총 3회였고, 참여한 전문가는 12명이었다.

우선 보행로와 공원이라는 2개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므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로 7017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운영시설,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고가 안에 배치하고 고가 활성화에만 주력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고,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 서울로 7017의 공간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고가 안에 집중된 에너지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변지역을 연결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이 가능한 관련 조직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주변의 문화자원들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서울로 7017이 가진 주요한 특성인 조망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도 강조되었다. 서울로 7017을 조망할 수 있는 주변 빌딩의 옥상을 개방하여 서울로 7017을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 홍보 및 안내체계 개선, 편의시설 재구성 및 운영주체 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고가 자체는 매우 성공적... 주변지역 활성화에 더 주력할 필요

개장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서울로 7017은 시민들의 산책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흐름은 일정 정체를 형성한 양상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

다. 이제는 지역으로 펼쳐나가 변화를 일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가 내와 고가 주변 사이 소통의 관계를 넓혀야 한다. 고가 위에서 고가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고가 주변에서 고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가 내에서의 행위보다 고가와 주변을 연결하는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서울로운영단>과 주변지역 운영주체들과의 관계도 긴밀해져야 한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문화역서울284> 등과의 관계도 넓혀야 한다. 서울역과의 관계도 넓혀야 하고 만리동과 서계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등과도 넓은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서울로운영단>과 별도로 서울로 7017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을 폭넓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계 또한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방문객 수 집객에 집중하나,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닌 ‘행태’다. 방문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만 고가 운영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로 7017 운영실태를 살피고, 향후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